

<2012년 6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반복>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그때 행하신다. 준비했다가 그때 하나님과 주님을 맞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1. 성자의 재림도 그러하다.
2. 재림의 날에는 인간의 시간을 안 맞춰 주신다.
3. 하나님은 이미 성자의 재림의 날을 짜 놓고 성자가 재림하게 하신다.
4. 그 날은 천하도 모르고, 땅의 신부들도 모른다. 오직 삼위일체만 아신다.
5. 삼위일체의 성자는 그 때를 아시니, 때를 맞춰 지금 마지막 준비를 위해 가지지 않겠느냐.
6. 땅의 신부들이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는 것을 알듯이, 신랑의 말을 들은 신부들은 성자의 재림의 경점은 안다.
7. 해가 뜰 때는 해가 뜨는 쪽이 흰하면서 점점 밝아진다.
8. 미련한 자는 해가 비춰서 반대쪽이 환하니, 그쪽으로 쳐다보다가 뜨는 해를 못 본다.
9. 뱃고동 소리가 나서 가 보니, 소리만 남아 있고 배는 이미 떠나고 없

었다.

10. (삽화 보여 주며) 항상 배는 소리보다 앞에 간다.

(삽화) 아래 비행기 그림을 배로 바꾸기.

11. 비행기 소리가 나서 가 보니, 소리만 남아 있고 비행기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12. (삽화 보여 주며) 항상 비행기는 소리보다 앞에 간다.

13. 성자 주님은 소리보다 앞에 가신다.

14. 왕이 떠난 후에야 그 마을에 왕이 왔다고 소리를 내며 떠들썩했다. 그래야 안전하다.

15. 소리만 듣고 사는 자는 시대 소경이다.

16. 눈을 뜨듯이 깨어 기다리는 자만이 성자가 와서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은밀히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같이 행하게 된다.

17. 새벽에도 평소에도 주님의 소리는 주님이 왔다 가신 후에 들린다.

18. 소리는 그 소리를 낸 자보다 늦게 들린다.

19. 제때 해야 사랑하는 성자 본체와 대화하게 된다. 성자가 가신 뒤에는 대언자가 전해 주고, 그와 대화한다. 깨달아라.

20. 기적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열차는 안 보이고 연기만 보이고 소리만 들렸다. 성자도 그러하고, 그 시대 보낸 자도 그러하다.

* 앞에 비행기 삽화처럼 해당 삽화 제작

21. 미친개들도 그 몸뚱이는 안 보이고 악평 소리만 들린다. 그러니까 귀신이며 마귀들이다.

22. 미친개를 쫓아가니,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논두렁에 빠져서 모를 심어 놓은 논을 뭉개며 개지랄하다가 깊은 수렁에 들어간다.

23. 조용할 때, 은밀할 때 주님은 왔다 가신다. 그리고 가신 후에 왔다 갔다고 이야기하신다.

24. 연애할 때 조용하고, 잔치할 때 떠들썩하다.

25. 하나님도 성자도 행할 때는 은밀히 하시고, 행할 것을 다 하신 후에는 증거하며 소문내게 하신다.

26. 33년 동안 섭리역사를 펼 때는 조용하다가 무덤 기간을 벗어나 다 해 놓고서 증거하면서 소문낸다.

27. 주인공이 사라진 후, 뒷마당에서 뒷북치고 잔치한다.

28. 성자 주님이 조용히 부르며 눈치 하실 때 단둘이서 사랑하지 않고, 청중 잔치하려고 사람들이 몰려 들 때 그제야 애간장 태우며 시간을 내려고 온종일 발을 동동 구른다.

29. 조용한 새벽, 은밀한 새벽이다.

30. 전능하신 신은 새벽에 활동하신다.

31. 잠신은 초저녁 복잡할 때 활동하며 사람의 정신을 빼 가고, 지갑을 빼 가고, 사랑의 지갑까지 빼 가고, 혼도 빼 간다.

32.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생각을 번뜩 떠오르게 하며 가르쳐 줘도 안 한다.

33. 미련한 짓이 습관 들면 고생 돼도 편하다. 열매 없는 나무다.